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나갈 것”

남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나서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소장 마상철)는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순창군의 다문화 가정에 대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6명을 투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가정은 남편 A씨가 알코올 의존증으로 수년째 일할지 못해 필리핀 출신의 아내가 생계를 도맡아 온 상황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 2명이 비좁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사업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서 가정환경을 알게 된 보호관찰관이 지역 보호관찰위원(이복순)으로부터 150여만 원을 기부 받았고, 보호관찰위원 하승길 회장 등이 이불 등 기부금품을 지원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 도배 및 장판교체, 방풍막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남원준법지원센터 마상철 소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이 대상자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지와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법무부 남원준법지원센터는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순창군의 다문화 가정에 대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6명을 투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남원 동통지구대,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활동에 주력

남원경찰서(서장 함헌배) 이동권 동통지구대장은 지난 24일부터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초기 신속 대응을 위한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최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를 대면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취하는 등 나날이 수법이 발전하며 '자능화' 되고 있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동권 동통지구대장은 “전화금융사기는 피해 발생 시 사후 구제가 어려운 만큼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사전 예방 활동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서,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

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8월 22일까지 위반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스쿨존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뛰어 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시야확보가 어렵고, 또한 어린이들은 순간 대처능력과 반응속도가 느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7월에 임실군 내 전 초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돌입하게 되면서 학교 및 학교 운동장 주변을 보행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임실서에서는 학교주변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도로 보다 2배 높은 범칙금(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과 벌점(20점)이 부과 된다.

/임실=전종영 기자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부임 이후 익산시민과 첫 만남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25일 익산경찰서를 찾아 익산 시민단체 및 각 면단위 거주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식 청장은 먼저 112지령실을 방문해 익산 현장경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령요원들을 격려했다.

이후 각 사무실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재회했다. 이전 12년도 익산경찰서장으로 부임 당시에 떠올리며 감회가 새롭다.

익산서 대동마루에 마련된 익산시민과의 설명회 자리에는 각 면단위를 대표하는 4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향후 전북 치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주민들은 전북경찰의 4대 핵심가치(정성, 정의, 정감, 정진) 실현 노력에 크게 공감하였다는 후문이다.

또한, 성·가정폭력, 장애인·아동 보호 및 다문화 관련 단체도 함께 초청한 가운데, 사회적약자 보호 활동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큰 관심과 철저하고 세심한 대응을 당부했다.

조용식 청장은, “12년만에 다시 익산을 찾으니 감회가 새롭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익산경찰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전북경찰이 되도록 이끌겠다.” 라고 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알림

▲2019 아름다운 동행 별밤콘서트 = 일시: 7월 30일(수) 오후 7시, 장소: 풍남문화광장(전주 대건신협 옆),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장예민복지협회 공동



김제시 성덕면, 마을안전 보안관 교육 실시

김제시 성덕면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복지공동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을 대상으로 사립중심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2019년 '마을안전보안관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독거노인 세대 증가로 인해 노년세대를 위한 생활안전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덕면은 농한기를 이용해 생활 내 거주 중심의 생활안전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드레싱 및 골절 처치, 전기·가스안전 예방 교육 등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성덕면은 안전교육을 수료한 25명의 면민에게 마을안전보안관 수료증을 수여했다. 최부호 복지공동체장은 “이번 마을안전보안관 교육을 통해 나와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사고 예방법과 생명을 살리는 법을 제대로 배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정기적으로 꾸준히 생활안전 자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차 등승 체험 및 길 터주기 훈련

남원소방서는 지난 24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도착시간 단축 및 소방차 등승 체험을 연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등승 체험에는 지난 5월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초기 진압한 공로로 남원소방서장 표창을 받은 유성진(39세) 씨가 참여했다.

체험 후 유 씨는 “평소 출동하는 소방차를 볼 땐 몰랐는데 직접 탑승해 보니 출동 중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었다며, 끝내타임 확보를 위해 나부터 양보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전했다.

소방차 등승 체험은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남원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630-823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소방서, 시민영웅과 함께 소방차길터주기

고창소방서는 시민영웅이 탑승한 소방차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며 모세의 기적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됐다.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25일 시민영웅이 직접 소방차에 등승하는 도민참여형 소방차 길터주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매월 1회 주요 정체도로 및 소방차 진입장 애지역에서 실제출동과 같이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고 이동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시민영웅인 유동운(37)씨가 1일 명예소방대원으로 소방차에 탑승하여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에 참여한다.

시민영웅 유동운씨는 2018년 11월 상하면에서 발생한 차량화재에서 인명구조 유공을 인정받아 고창소방서장 표창 및 LG의인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 이슈 중심에 섰던 의인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